



기억의 방식

천상중 3-3 정혜민

철없는 지금의 우리를 사진에 담아서
잊지 않게 간직하고 싶어.

세상을 잘 모르고 모든 것들이 처음인 우리를
조막만한 수첩에 붙여
평생을 기억하고 싶어.

먼 훗날 그 수첩을 열고
지금의 우리와 만나게 된다면
쓴소리 말고
안부 인사 묻고 싶어.

